K-기업, AI 기반 프리미엄 욕실·주방 라인업 대거 공개

KBIS 2026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가전' 소개
드로잉 로봇 통한 체험 콘텐츠도

LG전자 'SKS 런드리 솔루션' 공개
딥러닝 기반 AI가 세탁·건조 제어

삼성전자는 17일부터 19일까지(현지 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KBIS 2026'에 참가해 비스포크 AI 가전을 소개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KBIS 2026'에 참가해 주택과 고객의 일상을 바꾸는 맞춤형 프리미엄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LG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열린 북미 최대 주방·욕실 전시회에 인공지능(AI)기술이 대거 탑재된 프리미엄 욕실·주방 라인업을 대거 선보였다.

미국주방욕실협회(NKBA)가 주관해 17~19일(현지시간) 열린 'KBIS 2026'는 올해로 62회째이며 가전, 가구, 인테리어 등 약 700개 브랜드가 참가하는 북미 최대 규모 행사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를 주제로 약 112평 규모의 전시를 마련하고, 한층 고도화된 AI 기술이 탑재된 냉장고, 세탁건조기 등 최신 '비스포크 AI 가전'을 소개했다.

또 데이코의 럭셔리 빌트인 디자인을 강조하는 독특한 전시 연출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굴곡진 벽면에 컬럼 냉장고가 완전히 숨겨지는 연출로 인테리어와 가전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조화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또 삼성전자는 관람객들을 위해 색다른 체험거리도 마련했다. 관람객들이 전시장 입구에서 사진을 찍으면 드로잉 로봇이 관람객의 얼굴을 스케치해 스티커로 제작해 제공한다.

관람객들이 이 스티커를 벽에 붙이면 삼성전자의 전시 주제인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 라는 문구가 완성된다.

삼성전자는 맞춤형 AI 기술과 럭셔리 디자인을 갖춘 미국 특화 가전을 통해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약 303평 규모의 부스를 설치하고 ▲'SKS'와 'LG 시그니처(SIGNATURE)' 등 프리미엄 가전 ▲핵심 가전 부품 기술 기반의 고효율 가전, ▲북미 B2B 시장을 겨냥한 건물 관리 플랫폼 'LG 씽큐 프로' 등을 소개한다.

특히 29인치 SKS 워시콤보·건조기 등으로 이뤄진 'SKS 런드리 솔루션'을 처음 공개한다.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제어로 드럼의 회전 속도를 정밀 조절해, 6모션 세탁·건조 성능을 구현한다.

조리대·수납장·가전 기능을 통합한 아일랜드 시스템 제품도 전시된다. 조리대 아래 숨겨진 '히든 인덕션'은 사용할 때만 불빛으로 화구가 표시되며 '일체형 후드'는 사용하지 않을 때 조리대 아래로 완전히 사라진다.

이 밖에도 '36인치 컬럼(Column) 냉장고·냉동고', '36인치 풀플렉스 인덕션 쿡탑' 등 SKS 주방 가전 신제품을 소개한다.

LG전자는 북미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디자인 컬렉션으로 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를 선보인다.

'아이코닉 컬렉션'은 북미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탈을 주 소재로 사용됐다. 개성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한 '테일러드 컬렉션'은 그린, 화이트 등 주변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컬러를 강조했다. '심리스 컬렉션'은 럭셔리 가구 브랜드 '폴리폼(Poliform)'과 협업해 돌출된 부분 없이 가구 라인에 맞춰 밀착되는 빌트인 스타일을 구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HD현대重,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사' 유력후보 거론

입찰 막바지… 3개 그룹 최종후보
글로벌 조선·정비 거점 확장 기대

모로코 카사블랑카 신규 조선소 운영권 입찰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HD현대중공업-소마젝 컨소시엄의 선정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현지에서는 이 컨소시엄을 유력 후보로 거론하는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 입찰을 HD현대의 글로벌 조선·정비 거점 확장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모로코 현지 매체 블라디(Bladi)는 모로코 국립항만청(ANP)이 카사블랑카 해양산업단지 운영사 선정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고 최근 전했다.

카사블랑카 신규 조선소 사업은 모로코 ANP가 발주한 국제입찰로, 카사블랑카 항에 조성되는 조선소의 개발·설비·운영·유지보수를 30년간 맡을 운영사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조선소는 21헥타르 부지에 드라이도크와 9000톤급 리프팅 플랫폼 등을 갖춘 아프리카 최대급 조선·정비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배경으로는 선박 수리 수요 확대가 꼽힌다. 러시아 제재 이후 대체 정비 수요가 모로코로 이동하고, 모로코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상선 100척 확보를 추진 중이라는 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카사블랑카 조선소 운영권 입찰의 최종 후보는 3개 그룹으로 압축됐다. ▲이탈리아 업체 ▲중국·스페인·모로코 컨소시엄 ▲소마젝이 HD현대중공업·터키 쿠제이 스타룬과 구성한 한국·터키·모로코 컨소시엄이다. 소마젝은 모로코 항만·해양 인프라 분야 주요 기업으로, 카사블랑카 신조선소 건설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는 기술 60%·재정 40%로 진행되며, 입찰서 검토는 마무리됐고 최종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조선·해양 매체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HD현대중공업의 카사블랑카 운영권 참여를 베트남·필리핀 진출, 인도·미국·페루 협력 등과 함께 국제 전략의 연장선으로 소개했다. 업계에서는 조선소를 직접 '소유'하기보다 30년 장기 운영권을 통해 운영을 맡고 기술·노하우를 이식하는 방식이 인도(코친조선소 협력)·미국(에디슨 슈에스트 파트너십)·페루(잠수함 협력) 등과 같은 흐름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모로코는 인건비가 국내보다 낮고 유럽·아프리카 접근성이 뛰어나 유럽 선박 수리·정비(MRO) 수요를 흡수할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입찰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경쟁 구도는 선명해지고 있다. 모로코 경제매체 메디아스24는 최종 후보 중 하나인 '마리나 메리디오날·라디 홀딩·닝보 신러' 컨소시엄이 보도자료를 통해 건조·수리·개조·해체를 아우르는 종합 거점화와 조선소 중심 생태계 조성을 내세우고, 선주사·해군 수리 사전 계약 및 어선 발주 확보 등을 주장하며 경쟁력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사블랑카는 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인데 남유럽 정비 수용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어 운영 거점 가치가 크다"며 "현지 인건비가 국내보다 낮아 비용 경쟁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선주 접근성이 좋아지고, 베트남·필리핀·사우디 등 기존 해외 거점과 묶으면 권역별 네트워크 시너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16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증기터빈 구매 계약 서명식에서 양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앞줄 왼쪽)과 다니엘 프로차즈카 두산스코다파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은 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원전시장 본격 진출

두코바니 원전 설비 공급계약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핵심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원전 시장 확대에 나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인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공급할 증기터빈과 터빈 제어시스템에 대해 약 3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와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 서명식은 16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과 체코 양국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6월 신규로 추진 중인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하며 이른바 '팀코리아'와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팀코리아가 체코 현지 기업과 맺는 첫 대규모 협력 계약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코 정부가 강조해 온 현지화(Localization) 정책의 일환이다. 계약 대상은 증기터빈과 발전기, 터빈 제어시스템으로 총 2기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남아도는 철광석… 시장 펀더멘털 악화 전망

수요 둔화·공급 확대 가능성 동시 제기

중국 철강사 철광석 재고 증가와 신규 광산 공급 확대 전망이 맞물리며 글로벌 철광석 시장의 공급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가격 하방 압력도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3일 기준 중국 철강사 철광석 재고가 1840만 톤(전주 대비 +3.3%)으로 5주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춘절을 앞둔 비축 수요 영향이 컸다. 재고 부담이 커지면서 중국 철광석 가격은 769위안/톤(전주 대비 -18위안)으로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재고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계절적 수요다. 호주 자원시장 분석 플랫폼 디스커버리 얼럿은 제철소들이 춘절 연휴 기간 생산 차질에 대비해 사전에 원자재 재고를 높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만으로 가격 약세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은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제조업 모멘텀 둔화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철강 생산이 구조적으로 압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광석 수요 역시 약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수요는 글로벌 철광석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중국은 전 세계 해상 철광석 거래(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국으로, 철강 생산 변화는 글로벌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ING는 이러한 수요 둔화 속에서 철광석 시장이 올해 더 어려운 펀더멘털 환경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ING는 국제 철광석 벤치마크 가격 기준 2026년 연평균 가격이 톤당 약 95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공급 확대 요인도 본격화되고 있다. 영국 해운 데이터 분석업체 시그널 오션은 세계 최대 미개발 고품질 철광석 광산인 아프리카 기니 시만두 프로젝트가 생산 확대 단계에 진입하면서 공급 증가 압력이 커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시만두는 올해 약 2000만 톤 생산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 연 1억2000만 톤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주요 철광석 확장 프로젝트 역시 2026~2027년 사이 완료되면 연간 약 5000만 톤 생산 능력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직접환원철(DRI)과 전기로 확대 등 제철 기술 변화도 철광석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철광석 가격이 일방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철광석 선물은 저점 이후 톤당 760위안 이상에서 안정세를 보였는데,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기대가 가격을 지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오는 3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서 올해 경제 목표와 추가 부양책이 제시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철광석 가격 하락은 원가 요인이지만 철강재 가격도 원자재 흐름과 수급에 연동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원가 하락이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